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호세아 6:1-11

【인도자를 위한 예화】

카아아이 섬 연구는 1950년대부터 20년 동안 하와이에 거주하는 편부모 가정 어린이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입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가난, 부모의 정신 질환, 가정 내 폭력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연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부 아이가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연구 결과, 두 가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가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자랐고, 둘째는 이들이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 같은 사회적 관계의 지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성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지지와 관심을 받는 것이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는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은혜, 사랑과 맥을 같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가까이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끝끝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본문 읽기】 호세아 6:1-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북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과 사회적 부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와 같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시기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부정이 만연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실함을 그의 개인적 경험, 즉 불충실한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2절)와 같은 구절을 통해 심판 이후의 회복과 새 생명에 대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은 겉모습만의 회개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변화를 요구하시며,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비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며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깊은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열어 놓으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간의 회개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에서 오는 회개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실 분은 누구인가요?(1절)

그들을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자처럼 찢으시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5:13~14). 이스라엘 백성은 ‘앗시리아’라는 맹수의 맹렬한 공격에 찢길 것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끝끝내 살리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싸매어 주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라파’입니다. 이 단어는 치료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이스

라엘을 찢으시고 치셨기에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은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 무너진 이스라엘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I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내 삶에 일어났거나, 일어나야 할 구체적인 변화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1절). 이 구절은 찬양 가사나 설교 메시지에 자주 인용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과 죄를 향해 전력 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했던 말씀이지만, 또한 일상에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해서 경험하는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고 한숨을 내뿜고 눈물 흘리는 현재를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머물렀던 죄의 자리로부터 돌이킨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돌이킴으로 인해 일어난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돌이켜야 할 삶의 영역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는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했다고 하여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죄를 버리고 의를 가까이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취해야 할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진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관찰과 묵상 II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했나요?(6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종교적 의식이나 제사가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만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 깊이 교제하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와 번제는 형식적인 종교 예식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소원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성경에서 자비, 인자, 긍휼, 신실함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헤세드를 구현하는 삶의 예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 깊이 알아 감으로써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관계를 맺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상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적용과 나눔 II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지 나누어 보세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움으로써 사랑, 자비, 긍휼, 정의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익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 공부나 기도와 같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힌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하거나, 불의에 정의롭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개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이나 공동체에도 긍정적 변화를 끼칩니다. 일상에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